
碩士學位 請求論文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指導教授 梁 淳 珽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康 性 能

1988年度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康 性 能

指導教授 梁 淳 珽

1988年 月 日

康性能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8年 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 審 ①

副 審 ①

副 審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序言	9
II. 朝鮮朝의 流配制度	11
III. 生涯	16
IV. 海島錄에 나타난 文學世界	20
1. 憂時戀君	21
2. 身上的 自歎	23
3. 自我省察	39
4. 自然愛	42
V. 海島錄의 國文學史的 位置	53
VI. 結論	55
參考文獻	57
Summary	60



I. 序 言

朝鮮朝는 性理學을 治國의 道로 삼았는데, 이 성리학은 인생과 우주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유학의 일파¹⁾로서 비교적 이지적·귀족적·학구적인 이념이었다.

조선왕조의 기틀이 확립된 9대 성종 때에 이르러 성리학으로 이론적 무장을 한 선비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들 정치세력을 지칭해서 사림파라고 한다. 이들 사림파는 당시의 정권담당 세력인 훈구파와 대립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립은 중종 14년(1519년) 훈구파에 의해 사림파가 일대 제거당하는 충격을 맞는데 이것이 이른바 己卯士禍이다. 이 사건으로 사림파는 타격을 당하고 사림파 사대부들은 어제의 권좌에서 쫓겨남은 물론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나 절해고도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특히 濟州島는 격절성, 환해성, 협소성이라는 지리적 특성²⁾ 때문에 고려조 후기부터 조선조 말기까지 유배지로서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지역이 되어 왔다³⁾.

冲庵 金淨은 바로 趙光祖와 함께 왕도정치를 실현한 사림파의 한 사람으로 기묘사화로 인해 제주도에 유배되어 짧은 생을 마쳤다. 그는 유배지에서 쓰라린 아픔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많은 작품을 남겼다. 곧 유배문학이란 유배로 인한 현실로부터의 고립, 사회로부터의 단절 속에서 절망과 외로운 심경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형태라고

1) 崔完基, “朝鮮朝 書院 成立의 諸問題”, 「朝鮮朝 書院과 鄉約」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86. pp. 5~7

2) 姜景璿, “古典的 島嶼性에 대한 고찰”, 「계대논문집」 13집, 1981. p. 201

3) 梁淳瑛,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건국대학 박사논문, 1982. p. 3

볼 수 있다.“ 훗날 충암 김정은 제주인들에 의해 五賢의 한 사람으로 향사되었다.

본 연구는 충암 김정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된 시기에 지어진 「海島錄」의 유배한시를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 사회학적 방법론과 분석적 방법론을 원용하여 그의 문학을 고찰하고 나아가 국문학상의 위치를 설정하고자 한다.

4) 선학자들의 유배문학의 정의를 밝힌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趙潤濟, 「韓國文學概說」, 東國文化社, 1955
- ②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 ③ 徐東鈇, 「流配文學攷」, 文湖 창간호 1960.
- ④ 丁益燮, “流配文學小攷”, 「无涯 梁柱東博士華誕記念論文集」, 東國大學, 1964.
- ⑤ 金永琪 “流配文學論”, 「現代文學」, 통권 147권, 現代文學社, 1967.
- ⑥ 文璘植, “流配歌辭의 內容的 考察”, 「全南大學 語文論集」 5집, 1969.
- ⑦ 梁淳珉, “李朝流配文學研究”, 高麗大學 碩士論文, 1969.
- ⑧ 趙成桓, “국문학과 적소관계”, 군산교육대학 논문집」 7집, 1974.
- ⑨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74.
- ⑩ 朴晟義, 「韓國文學背景研究」上, 二友出版社, 1976.
- ⑪ 秦東赫, “李世輔의 流配時調研究”, 「단국대학 논문집」 15집, 1981.
- ⑫ 池鍾玉, “流配詩歌研究”, 圓光大學, 碩士論文 1981.
- ⑬ 梁淳珉,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건국대학 박사논문, 1982.
- ⑭ 최상은, “유배가사의 작품구조와 현실인식”, 「문학연구」 3, 경원문화사, 1984.
- ⑮ 高定佑, “桐溪 鄭蘊의 流配漢時 研究”, 濟州大學 碩士論文, 1986.

II. 朝鮮朝의 流配 制度

流刑은 중죄를 범한 자에게 死刑까지는 科하지 않고 遠隔地로 유배을 보내어 종신토록 다시 귀환치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⁵⁾ 따라서 일반적 流刑의 본질은 自由刑과 비슷하나 死刑의 換刑으로 대치되는 사형 완화법으로 이용되는데 있다.⁶⁾ 流刑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분 國事犯으로서 役刑 1年 이상의 律에 저촉되는 자에게 과해졌다.

이러한 流刑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史料에 의하면, 流刑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⁷⁾ 추정할 수가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삼국시대에 流刑은 隋·唐의 제도에 영향을 입었으리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고려 시대에 와서는 唐律을 모방하여 死·流·徒·杖·笞 등의 五刑을 高麗律로 확정하였다. 고려조 流刑의 기준은 유배지의 遠近·거리에 따라 그 경중을 책정하여 2千里·2千5百里·3千里의 세 등급으로 구분한 바가 있는데 流2千里는 杖17·징역 1년·贖銅 80斤, 流2千5百里는 杖18·징역 1년·贖銅 90斤, 流3千里는 杖20·징역 1년·贖銅 100斤 등등⁸⁾으로 贖刑制를 인정하였다.

조선조에 와서 太祖가 卽位 교서에서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형 집행 관원은 무릇 공적·사적인 범법은 반드시 大明律에 의거해야 한다고⁹⁾ 선포하였다. 조선조는 건국초 高麗律과 같이 五刑을 택하고, 大明律에 준한 刑罰을 행하기 위하여 따로 실정에 알맞게 徒刑, 流刑, 贖刑 등을 정하였고 明律에 규정된 里數는 朝鮮의 里數로 계산하여 贖錢의 일부를 감하였다.

5) 「大明律直解」, 明例律 五刑名義 “流配謂人 犯重罪 刑殺 流法遠方 終法遠方 終身不得回歸”

6) 法文社編, 「法律學辭典」 法文社, 1968p. 701

7) 「北史」百濟傳 “其刑罪 反逆退軍及 殺人者斬 盜者流” 「三國史記」新羅本紀 興德王 3年條 “漢山州川人妖人 自言有速富之術 衆人頗感之 王聞之曰執左以或衆左刑之 先王之法也 投畀其人遠島”

8) 「高麗史」卷38, 刑法志 流刑條

9) 「太祖實錄」卷1, 元年 壬申 7월 “乙巳條 自令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心該大明律”

조선조의 流刑은 반드시 杖刑을 併科했고, 流2千里·杖1百, 流2千5百里·杖1百, 流3千里·杖1百 등 세 등급이 있고 매 5百里마다 刑一等이 加減되었다.¹⁰⁾ 그런데 이 규정대로 시행하기엔, 불합리하여 지리상 流3千里의 형집행은 불가능하므로 유형수의 거처를 중심으로 流刑의 등급에 따라 일정한 지방을 지정하여 유배를 보내는 등 실정에 맞도록 처리하였다.¹¹⁾

流3千里 등의 刑 規定은 국토가 중국에 비해 좁은 조선조에서는 이것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종 12년(1430) 윤 12월에 刑曹의 上奏에 따라 유배지방을 정한 바가 있었다.

京城·京畿 左右道 留後司에서 3千里로 유배할 자는 慶尙·全羅·平安·咸吉道 안에서 30息 밖에 있는 해변의 여러 고을로, 2千5百里는 慶尙·全羅·平安·咸吉道 안에서 25息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2千里는 慶尙·全羅·平安·咸吉道 안에 20息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유배지방을 정하였다.¹²⁾

그 밖에 黃海道·平安道·忠清道·全羅道·慶尙道·咸吉道·江原道 등지에서 각각 3천리·2천5백리·2천리 등 해당 도를 중심으로 유배지방을 정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大典會通」에 의하면 濟州 三邑人(濟州·大靜·旌義)으로서 流罪를 범한 자는 三邑 內에서 상호 정배케 하고 濟州 三邑 사람으로서 도망하거나 허가없이 타지방으

10) 「大明律直解」名例律 五刑名義 “自二千里 二千五百里 至三千里 爲三等 每五百里 爲一等加減”

11) 그 밖에 流3千里를 曲行하여 실시한 事例가 있는데 正祖 卽位 年 10월6일에 義禁府에서 啓하기를 機長縣으로 流配되는 3千里 流配者 金若行을 3千里 유배의 전례에 따라서 다시 謫所를 정하여 曲行토록 하명하였으니 왕도에서 機長까지는 970리이고 機長부터 江原道 平海郡까지, 平海郡에 咸鏡道 端川府까지의 거리를 합하면 3千里가 되니 曲行의 과정을 계산하여 端川府로 유배 보내기를 청한 바 왕이 이를 운허하고 하교하여 이르기를 900리 땅으로 유배시킨 것은 流3千里 뜻이 없으므로 曲行케 하여 流刑人 金若行으로 하여금 조정에 流3千里의 流刑이 엄격히 실시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또 曲行할 때에 고통을 받게 함이라고 한 예가 있었다. (「日省錄」 43卷 正宗 卽位년 丙申 10월 6일조)

12) 「世宗實錄」卷 50. 12년 庚戌 潤 12월 11일조 “京城留後司 京畿 三千里 則 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 三十息外 濱海各官, 二千五百里 則 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 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 則 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 二十息外各官”

로 이주한 자는 죄를 주고 原籍에 되돌리는 한편 이런 제주인을 감싸준자는 杖1百에 3千里 먼곳으로 유배케 한다¹³⁾는 규정이 있어 제주인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었는가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배지의 원칙은 수립했지만 정치범이나 특수 범죄인에 대한 유배지 선정은 王府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일부 예외가 인정되었다.

조선조는 유배 형기는 원칙적으로 무기종신형이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단죄가 된 유배자는 군왕의 사면령과 정치 정세의 변동이 없는 한 한평생 유배지에서 귀향할 수 없는 것이 상례다. 조선조의 사면제도는 당파적·세도적 정치에 좌우되어 극도로 정실적·정략적으로 남용되어져 그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치 못하였다.¹⁴⁾

流刑에는 遷徙·付處·安置 등의 세 가지가 있었다. 遷徙는 “遷離鄉土一千里外”로서 범죄인을 고향에서 천리나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주 시키는 형벌이다. 遷徙는 침해적 성격을 가진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있다. 遷徙에는 全家徙邊이란 것이 있는데 유배자와 함께 멀리 벽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가혹한 형벌이다. 곧 罪는 三族에 미친다는 三族連座刑·家族連座刑의 일종이어서 중종 4년(1509)부터 실시되었지만 형벌이 가중하다 하여 그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付處는 中途付處의 준말인데 이것은 관원에게 과해진 형벌의 일종이다. 유배자에게 그의 진상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지내게 하는 데 유배지 縣官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措置를 맡긴 형벌이다. 付處는 儒生에게 대해서도 관원에 준하여 적용되었는데 중종 때 尹衡을 외방에 付處시킨 바 있고¹⁵⁾ 이 付處의 가장죄로 노비가 되기도 한다.¹⁶⁾

安置에는 本鄉安置·絶島安置·圍籬安置 등의 세 가지가 있다. 본향안치란 安置刑에 있어서도 가장 죄질이 가벼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죄인의 고향에 유폐시키는 것이다. 太祖 원년(1392) 7월의 교서에서 고려 말기에 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13) 「大典會通」刑典

14) 赦免이 내리면 10惡(① 謀反 ② 謀大逆 ③ 謀背 ④ 惡逆 ⑤ 不道 ⑥ 大不敬 ⑦ 不孝 ⑧ 不睦 ⑨ 不義 ⑩ 內亂)의 범죄와; 大罪(① 謀反 ② 強盜 ③ 殺人 ④ 強姦 ⑤ 脅騙)의 범죄를 제외해서는 전국적으로 직결·미결수 모두 석방되어지는게 관례였으나 정치적 유배자의 경우는 정략적으로 남용되어져 왔다.

15) 「中宗實錄」卷11, 5년 庚戌 4월7일條, “上命 尹衡外方付處”

16) 「成宗實錄」卷246, 21년 庚戌 10월.

모의해서 맨 처음으로 禍端을 일으킨 禹玄寶 등 56명에게 5등급으로 나누어서 형을 내렸는데 그 중 본향안치는 가장 경미한 형에 속하는 것이었다.¹⁷⁾

絶島安置는 流刑 중 가장 가혹한 隔離 措置인데 무인도나 그 밖에 島嶼에 안치시키는 형벌이다. 이른바 중죄인에 대한 應懲 措置인데, 극악한 경우 毒蛇·毒虫이 서식하는 곳에 안치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安肇煥의 경우 추자도에서 그런 고초를 겪었음을 「萬言詞」에서 표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도안치는 「大典通編」의 刑典에도 絶島에 官守가 없는 곳에는 죄인의 유배지로 편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흑산도와 같은 극악한 지역에는 국왕의 특별한 교지가 없으면 유배시켜서는 아니되며 제주의 三邑에는 罪名이 특히 중한 자 이외는 유배시켜선 안 된다 했다.¹⁸⁾

위리안치란 죄인이 적소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유배시키는 것인데 중연금에 해당하는 형벌로 중죄인에게 내리는 것이었다. 탕자나무가 전라도 지방과 제주 지방에 많았으므로 이 형을 받은 사람은 대개 전라도의 연안 해안의 섬과 濟州島로 많이 갔다. 대체로 유배자는 그의 가족과 함께 동반할 것을 원한다면 허락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위리안치만은 大明律에서는 가족과의 동거를 허락하였으나,¹⁹⁾ 조선조에서는 “不可與家屬混處”라하여 허락치 않은 점에서 가장 가혹한 유형이었다. 정치적 유배자의 濟洲島配는 모두 이 위리안치였다.

受刑者의 發配에는 그 관직의 고하에 따라 호송자가 다르다. 金吾梅棘 죄인과 정이품 이상의 고관이면 都事(義禁府의 從五品官)가 유배지까지 호송을 맡고, 그 이하의 죄인은 堂上書史나 堂下羅將이 그 호송을 담당했다. 또 刑曹의 죄인으로 徒配 이상의 죄인이면 京驛子가 이를 압송해 가고 다음 驛吏에 인계하며 유배지까지 호송했다. 또 徒·流·付處·安置 등 유배당한 자는 刑曹에 기록하고, 他司 및 외방에 유배당한 자도 刑曹에 기록해 두고 후일 범죄인의 검사 자료로 삼았다.

京外의 죄인이 유배지로 호송되면 관내의 道觀察使는 즉시 그 자의 죄명과 도착 일시를 기록하고 국왕에게 상주했다. 그리하여 유배인의 감시 책임은 관내의 守令이

17) 「太祖實錄」卷1, 元년 壬申 7월 乙巳條, “五十六人在前朝之季 結黨 謀亂…各於園籬安置”

18) 「大典通編」刑典 推斷

19) 「大明律直解」名例律 五刑名義, “凡犯流者 妻妾從之 父祖子孫欲 隨者聽”

말한다. 당시의 정권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유배된 자의 적소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 지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정상 참작으로 유배인의 왕도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지는 수도 있었다. 앞엿 것을 '移配'²⁰⁾ 뒤엿 것을 '量移'라고 한다.

유배지로 발배하는 도중 만약 생존시켜 두어서는 후환이 있다고 판정이 되는 자 또는 중죄인 등을 호송관리가 독살 또는 익사시켜 버리기도 했다. 그 예로 당쟁이 치열했을 때 朴泰輔는 유배 도중 죽었다고 하는데 앞의 수법과 같이 독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조선조의 유배지 선정은 遼流와 島配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島配라고 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어 책정되고 유배지나 적소가 결정되어진 게 아니라 그때 그때 형편인 정치정세나 죄인의 신분차이와 죄상의 경중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제주도에 유배된 유배인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그런 벽지에 유배당한 것보다 島配당한 것이 더 중죄인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조선조의 刑律制度에 결함이 있다기 보다 골육상잔의 당쟁에 이용되어진 면이 컸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유형중에 최악형인 절도 안치란 것은 조선조 봉건국가의 권력적·정치적 질서의 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조선조가 遼配보다 島配를 보다 더 중시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 곧 宋時烈이 제주에 유배당한 후 井邑으로 移配된 것과 仁祖 16년(1638) 4월 備邊司로부터 왕에게 역적의 자식이 연령 미만이나 연좌형에 처해져 남쪽에 유배되어 있지만 이제는 성장했으므로 제주도에 가까운 珍島·長興 등지의 유배자처럼 다른 섬에 移配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상주하자 왕이 이것을 승인한 바가 있다. (『備邊司瞻錄』 仁祖 16년 4월조)

Ⅲ. 生 涯

훈구세력 지배하의 조선사회는 성종(1469~1494) 때에 지방의 사람들이 대거 중앙의 정치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진통을 겪어야 했다. 사림이란 지방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讀書人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중앙의 정계에 진출한다기보다는 향촌에서 留鄕所나 鄕廳을 통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력이었다.

사림 중에서도 嶺南의 사림은 고려왕실에 대한 절의를 지켜 조선에서 벼슬하기를 거부한 吉再의 학통을 이어받은 학자들이었다. 이들의 세력이 크게 떨치게 된 것은 길재의 孫弟子인 金宗直에 이르러 金宏弼, 鄭汝昌, 金駟孫 등의 많은 제자를 배출함에 이르러서였다. 이들은 대체로 경학에 능통한 도학자여서 관학자들과는 학문의 경향을 달리하고 있었다. 처음 지방에서 子弟들의 교육에 전념하던 이들은 성종이 훈구세력의 일방적인 비대를 막기 위하여 등용함에 미쳐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주로 3司 계통에 자리를 차지하고 言論文筆을 담당하였다. 이리하여 정치계는 훈구세력과 사림세력 간의 대립 투쟁을 조성하여 드디어는 사회를 낭개 하였던 것이다.²¹⁾

충암은 이러한 훈구세력과 사림세력 간의 대립이 점차 격화 일로에 있는 성종 17년(1486년) 9월 丁未日 忠淸道 報恩郡 磬足里 경주김씨의 집안에서 正郎을 지낸 孝貞과 許氏夫人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²²⁾ 그의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元冲이고, 호는 冲庵 또는 孤峯이다.²³⁾

충암은 13세 유년기에 이른바 연산군 4년(1498년) 戊午史禍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어 甲子士禍라는 일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生員試에 합격했으나 연속되는 불안한 시대에 이르러 그 시대악과 사회악을 통감한 나머지 出仕를 하지 않았다.

21)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84. p. 245.

22) 「冲庵先生年譜」, 乾

23) 「冲庵先生年譜」, 乾, 「冲庵先生集 五」

연산군 때에 일어난 戊午史禍를 史禍라고 적는 것은 그것이 史草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김종직의 제자인 金駟孫은 史官으로 있으면서 김종직이 지은 「弔義帝文」을 史草에 올렸었다. 김종직이 端宗을 項羽에게 죽음을 당한 義帝에 비기어 그 죽음을 슬퍼하고 世祖의 찬탈을 비난한 것이 「弔義帝文」이었다. 연산군 초에 「成宗實錄」의 편찬을 위한 史局을 열었을 때는 위의 史草가 발견되자 훈구세력은 연산군을 충동시켜 金駟孫 등의 사림학자를 혹은 죽이고 혹은 귀양 보내었다. 이 결과로 사림들의 세력은 크게 꺾이게 되었다.

그 뒤 방탕한 생활이 도를 지나친 연산군은 쫓기어나고 증중이 즉위하였는데, 증중은 연산군과는 달리 자기의 전체적인 힘을 억제하고 유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임금이었다.²⁴⁾ 증중반정 후의 사림과 사대부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지자 충암 김정은 증중 3년(1508)에 드디어 출사하여 成均館 典籍을 제수받고 司諫院 正言, 弘文館 修撰, 兵曹佐郎 등 두루 요직을 역임하게 된다.²⁵⁾ 그는 조광조와 함께 조선의 道學政治를 구현하려고 했다.

증중 10년(1515년) 7월에 충암은 신하로서의 大義와 名分을 내세워 潭陽부사 朴祥과 함께 廢妃愼氏의 復位를 상소하였다. 충암의 直節은 漢文帝 때의 賈誼와 武帝 때의 汲黯의 충간에 비유할 정도였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그해 8월에 충암은 報恩 畷琳驛에 유배되었다.²⁶⁾ 이 사건에 대하여 조광조는 상소자를 벌함은 言路를 막는 결과가 되어 국가 존망에 관계된다고 하여 李荇을 파직케 하여 오히려 김정을 두둔하게 되었다.²⁷⁾

증중 11년(1516년)조정에서는 충암의 재등용에 대하여 거론하게 되었다. 증중이 충암을 등용시키고자 그 뜻을 전했으나 충암은 이를 사양하였다.²⁸⁾ 그러면서 풍악산, 속리산 등을 찾아다니면서 자연에 침잠하며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그러나 증중 12년(1517년) 通政大夫에 승급 副提學에 임명하자 충암은 4,5차례에 걸쳐 사정을 말하

24) 李基白 전제서, p. 246

25) 「冲庵先生年譜」, 乾, 中宗 3년(1508년)

26) 「冲庵先生年譜」, 乾, 中宗 10년(1515년)

27) 「中宗實錄」, 10年 乙亥 11月 條

28) 「冲庵先生年譜」, 乾, 中宗 11년(1516년)

고 해면을 애원했으나 군왕이 소명을 받도록 연속 하명하자 부득이 상명을 받들게 되었다.²⁹⁾ 그는 조광조와 함께 충성을 다하며 유가적 개혁정책을 펴 폐단을 개혁하고 교화를 일으켜 일종의 왕도정치를 실천해 나갔다. 곧 조광조와 더불어 昭格를 없애버리고 제사의 예법을 바로 하였으며 향약을 펴 백성들에게 떳떳한 윤리를 가르쳤다.³⁰⁾

중종 13년(1518년)에 충암은 大提學으로 옮기면서 賢良科와 三代之治의 실현을 위해서는 君王도 賢人, 哲人の 경지에 이르기 위한 修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賢哲君主論을 이념으로 했다.³¹⁾

연산군의 학정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君主의 不德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김정, 조광조 등을 비롯한 사림파가 도학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君主의 修己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훗날 사림파와 훈구파의 갈등을 예고한 전초전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훈구세력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훈구세력의 반발은 僞勳削除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게 되었다. 僞勳削除란 증종반정 공신 중에서 濫受者 76명의 勳을 깎은 것이었다.³²⁾ 이에 분격한 훈구세력은 모략으로 왕을 움직여서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였던 것이다.³³⁾ 이것이 기묘사화이며, 이로 인하여 사림세력은 또 한번 크게 꺾이었다.

충암은 기묘사화로 중종 14년(1519년) 11월 錦山에 유배되었고, 다시 동왕 15년 정월에 珍島로 이배되었다. 그런데 금산에 유배되었을 때 모친이 병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군수 鄭態에게 요청하여 모친을 문병한 것이 발각된다. 이것이 충암이 망명하려 했다는 시비로 번져 죽음을 면치 못하는 위기에 처해졌다. 충암은 억울한 정상을 옥중에서 상소하자 특별히 사형에서 杖一百의 유배형으로 제주도에 圍籬安置하도록 명을 내렸다.³⁴⁾ 同王 15년(1520년) 8월 21일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성 동문 밖 金剛社

29) 金埴, 「海東名臣錄」

30) 金埴, 「海東名臣錄」

31) 「冲庵先生年譜」, 乾, 中宗 13年(1518)

32) 「中宗實錄」, 卷37, 14年 己卯11月條)

33) 安塘, 「己卯錄 補遺」上

34) 「冲庵先生年譜」, 乾, 中宗 14年~15年(1519~1520年)

옛터에 있는 초라한 여막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동왕 16년(1521년)辛巳 10월에 賜死되었다.³⁵⁾ 그는 죽음에 이르러 다음의 「臨絶辭」를 남겼다.³⁶⁾

臨絶辭

投絶國兮作孤魂 절지에 귀양와 외로운 넋이 되니
遺慈母兮隔天倫 어머니를 두고 가 천륜도 끊겠구나
遭斯世兮殞余身 이 세상 만나 이 목숨 끊어지니
乘雲氣兮歷帝闈 구름을 타고 임금 계신 곳에 가리
從屈原兮高逍遙 굴원을 따라 높게 소요니
長夜冥兮何時朝 기나긴 어둔 밤 언제면 아침이 되리
爛丹衷兮埋草萊 밝은 일편단심은 썩밭에 파묻히고
堂堂壯志兮中道摧 당당한 뜻 중도에 꺾이었으니
嗚呼千秋萬歲兮應我哀 오호라, 천추만세에 내 슬픔 더 하리로다.

그는 제주 유배기간에 「海島錄」, 「濟州 風土錄」 등을 남겼다. 그는 선비의 곧은 길을 걸다가 지조가 있는 선비로 결국 왕도 정치의 큰 뜻을 다 펴지 못하고 죽음의 땅 제주도에 36세의 나이로 사사당한 문인이었다.

35) 「冲庵先生年譜」, 乾, 中宗 15년~16년(1520~1521)

36) 「冲庵先生集」卷4

IV. 海島錄에 나타난 文學世界

충암은 제주 유배기간 동안 온갖 고초와 고독·절망·우수·자탄 등을 시문으로 표출하였다.

그의 시문은 “많은 것이 유실되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 몇 편 없다. 그 조카 천우가 보고 들은 것을 수습하여 두권을 만들었다”³⁷⁾고 한다.

「己卯錄補遺上」에 보면 “문장은 정묘하고 심오하여 멀리 西漢의 체계를 따랐고, 시는 盛唐體를 배웠다”³⁸⁾고 하였다.

‘尹根壽는 「月汀漫筆」에서 “己卯讀賢들의 한 시대의 評論이 문장은 漢나라의 法을 본받았고, 글씨는 晉나라의 法을 본받았으며, 시는 唐나라의 格調를 배웠다”³⁹⁾라고 하였다.

「慶州金氏世蹟錄」에도 一掛眠 終身不忘 文注西京 詩學盛唐 雄健俊逸 不沿襲陳言⁴⁰⁾이라 하였다.

위의 평에 따르면 충암의 시가 盛唐風으로 우수하였음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당대의 시풍이 宋詩風이었음에도 충암이 盛唐風으로 시를 지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곧 달리 말해서 충암은 비록 사림의 儒臣으로 道學과 思想 일변도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詞章派를 능가하는 詩才를 발휘한 문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충암이 남긴 遺稿를 정리하면 詩(絶句, 律詩, 排律)가 약 6 백수가 되며, 文으로는 賦 1편, 祭 14 편, 辭 2 편, 銘 5 편, 歌謠 2 편, 辨 1 편, 書 4 편, 疏 6 편, 箴 11 편, 書札追錄 4 편 등등으로 모두 57 편이 된다.

이 중에서 그의 문집이 간행될 때 제주도 유배와 관계된 한시가 「海島錄」에 수록

37) 魚叔權, 「稗官雜記」(4),

“金冲庵淨以能詩文名一世 所著遺失 存於世者無幾 其猶子天字 收拾見聞 ……二卷”

38) 「己卯錄補遺」上, 金淨條, “文章精深灑灑 遠追西漢 詩學則盛唐”

39) 尹根壽, 「月汀漫筆」, “己卯諸賢一時之論以爲文則法漢書則法晉 詩則學唐 ……”

40) 「慶州金氏世蹟錄」, 金淨條, 경주김씨세적목록편찬위원회, 1978.

되어 있는데 「海島錄」에 수록된 한시를 보면, 5언절구 8수, 5언율시 15수, 7언절구 15수, 5언배율 2수, 7언배율 1수 등 도합 41 수가 수록되어 있다.

충암 김정 의 「海島錄」에 한시를 유배생활과 밀착된 인간, 사회, 자연의 세 영역 안에서 작가와 이 대자적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주제를 설정하였다.

1. 憂時戀君
2. 身上의 自歎
3. 自我省察
4. 自然愛

등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憂時戀君

조선조의 치국이념인 성리학이 내세운 명분 가운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공자의 春秋大義 정신으로서 군신간의 의리가 그것에 포함된다. 군신간의 의리하 함은 곧 충의 개념으로서 조선조의 선비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삶의 좌표이자 도리 가운데 하나였다.

곧 충이라 함은 조선조시대의 천명덕치의 통치원리를 가능케 한 기본적인 사상의 지렛대인 셈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유배지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유배인의 경우라 하여도 예외가 아니었다. 도리어 士禍는 불의에 항거하는 의리의 투쟁이라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충의 정신은 더욱 강렬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배문학의 내용은 유배지에서 겪은 온갖 고초와 고독감 속에서도 임향한 일편단심은 불변이어서 한결같이 忠臣戀主之詞의 성격을 지닌다.⁴¹⁾

이는 곧 유배지에서 겪는 고초와 유배 생활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보다도 군주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정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충암은 한결같이 우리 입금은 장차 성군이 되리라는 것만 믿고 충정을 다했다. 못 사람의 뜻을 거슬렀으나 다만 입금 있는 줄만 알았을 뿐 딴 것은 헤아리지 않았다.

41) 이상보,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74. p. 17

우리 임금의 堯舜 같은 착한 임금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⁴²⁾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곧 오로지 임 향한 일편단심의 충정에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海島錄」에 나타난 충암의 유배 한시 중 우시연군을 노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작품을 예거할 수 있다.

渡碧波口號

宇宙從來遠 우주는 본래 부터 넓고
 孤生本自浮 외로운 인생 본디 스스로 떠다니니
 扁舟從此去 작은 뚝단배가 가는 것에 따르고
 回首政悠悠 돌이켜 정사를 생각하니 근심이구나

기·승구의 '宇宙從來遠 孤生本自浮'에서는 道學者的인 우주관, 인생관에 관한 토로이다. 道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 인생의 진리를 탐색하고 부단한 자기수양을 통해 이 세상에 儒道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도학자는 「窮理」「修身」을 통해 「化民」하려는 일에 집념한다.⁴³⁾ 도학자의 집념이 이러하기 때문에 문학도 당연히 道를 인식하거나 구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시작과 끝이 어딘지도 모를 無始無終의 망망대해에서 아득한 미래 시간에 이르기 까지 뚝단배에 침잠하는 심증이 나타나 있다. 승구의 '孤生本自浮' 곧 옛 사람들은 인생을 浮生이란 말로 표현했듯이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 그것은 정치에 실의하였을 때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유한성에서 오는 허무감일 것이다.

그러나 결구에 와서는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국사를 생각하는 憂國之心은 무한한 愛憐의 정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42) 「己卯錄補遺」上, “君將聖 展竭恐衷 冒犯群情 只知有君 不計其他 望欲吾君爲堯舜之善”

43) 황패강외,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p. 259

夢

溟浪千理隔 바다물결은 천리를 막혀 버리고
蓬山一步傳 봉래산에 한 꿈을 전하려하나
思君不可見 그리운 임은 볼수 없고
知我者其天 내 뜻은 임금만이 알 것이다.

충암은 위 5언 절구 「夢」에서 절박한 현실적 좌절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리움을 꿈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꿈의 내용이 과거에의 퇴행이건 미래의 원망이건 현실도피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이다. 설사 시에 하등 꿈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는 일종의 현실의 꿈을 반영하는 매개물이 아닐 수 없다. 곧 어두운 시대를 사는 시인의 꿈의 표현인 것이다. 어두운 현실은 외로움, 좌절, 눈물 등으로 의식되고 그러한 의식의 극복 및 출구는 다름아닌 바로 꿈이었다.

눈앞에서 아득한 바다물결 뿐 언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지 꿈 속에서나 그리운 임을 만나보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임금만이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강인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왕래가 至難한 단절된 원악지 외면성에 유폐당한 충암의 연군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멋떳함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2. 身上의 自歎

충암은 사림의 영수인 조광조와 함께 이상적 왕도정치를 실현하려다가 훈구파의 간계로 결국은 유배를 당하게 된다. 이 유배는 유가적 개혁정치를 꿈꾸던 충암의 이상이 현실에 좌절을 당한 것이다. 이 좌절감은 결국 절망적인 데까지 이르고 있다. 35세의 나이에 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젊었다.

더우기 이상의 실현이 불가능해졌으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보장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깊은 자탄을 한다.

그의 「海島錄」에서 신상의 자탄으로 흐르는 한시가 으뜸을 차지하는 것도 모순된 사회에 항거하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인간의 양심과 지조를 지킨 일종의 순수 저항이기 때문인 것이다. 곧 화려한 신상에서 유형수가 된 운명에의 변천은 바로 불운의 변신으로 절로 신상을 자탄하고도 충분하였다.

赴耽羅論所行次 仙巖驛 驛柱 有昌世詩 謾次韻

靡靡吾行邁	부지런히 와서
巖裝待曉鷄	선엄마을에 행장을 풀고, 닭울기를 기다렸다.
川原迷道路	내골을 길로 잘못 알고
泥潦亂陸畦	진흙탕은 밭둑을 넘쳤다.
南客終懷北	남쪽 나그네는 마침내 북쪽을 생각하지만
東流豈解西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어찌 서쪽으로 흐르겠는가
飄飄定何往	표표한 이몸은 정녕 어디로 갈 것인가
恐是入青齋	아마도 청·제로 들어갈 것이다.

이 시는 서울을 떠나 제주의 적소를 향하여 가는 노정에서 선엄역을 지날때 그 역사의 기둥에 창세라는 친구의 시가 걸려 있어 평소에 교우관계를 맺고 있던 사이라 그 우정을 가늠 길 없어 쓴 것이다.

移配되는 과정은 形言難測의 천신만고의 고역을 치러야 했다. 앞으로 닥쳐올 참담한 현실을 '迷道路'로 나타내 어둠 속을 자맥질하는 기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충암은 천리타향인 유배지에서 고향 쪽인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에다 향수의 눈물을 뿌려야만 했다. 결구의 '飄飄定何往'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확실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충암은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여 물결에 떠내려간 부초같이 살아간 비극적인 시인이었다.

회향의 연모와 무상감은 유배 한시의 기본적인 주제를 이룬다. 충암은 만리타향에서 고독한 신세를 껴는 듯이 고향을 그리어 어느덧 초라한 몰골로 변하여 인생의 무상감을 발견하게 된다. 朝鮮朝人の 無常形을 보면 인간의 현실적 공명귀천은 모두 허황된 꿈에 불과하니 유한한 인생을 안빈낙도로 즐기자는 인생관이다.⁴⁴⁾ 조선조의

44) 金東俊, "李朝夢幻時調의 研究", 「국어국문학」, 16 국어문학회, 1979. p. 455

이러한 소극적 인생관은 왕실의 골육상쟁과 사화당론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했고, 마침내 무상과 허무적 색채로 물들게 했다고 본다. 사화로 인한 암담한 유배생활에 직면한 충암은 내면공간이 무상과 허무감으로 젖고 있다.

곧 충암의 회향한 마음은 고향쪽으로 흐르는 강물에다 향수의 눈물을 뿌려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충암이 인식한 정한의 세계였다.

題路傍松三首

枝條摧落葉鬢髮	가지는 부러지고 잎새는 형클었는데
斤斧餘身欲臥沙	도끼에 상한 몸이 모래 위에 누우려 하네
望斷棟樑人世用	네몸이 동냥되기는 이미 글렀으니
查牙堪作海仙槎	굽은 가지로 바다 신선이 뗏목이나 만들게
海風吹去悲聲遠	바다 바람 불고 가니 슬픈 소리 멀어지고
山月高來瘦影疎	산에 외로이 달 떠오르니 여윈 그림자 성기었네
賴有直根泉下到	그 곧은 뿌리 샘 이르러서
雪霜標格未全除	눈과 서리에도 그 기상 전혀 없어지지 않네
欲庇炎程胸死民	뜨거운 길 더위 먹은 사람 쉬어가게 하려고
遠辭巖壑屈身長	바위구렁 멀리 하직하고 길가에 긴 몸 굽혔네
斤斧日尋商火煮	나무꾼의 도끼가 날마다 찾아와도
知公如政亦無人	정사를 한다면 그 공을 알 사람이 또한 없어라

위의 7인시 「題路傍松三首」는 提學 金淨이 제주도로 杖流되어 가는 도중 배를 타려고 육로의 끝 해남 바닷가에 이르러 때마침 길게 늘어뜨린 白老松 밑에서 쉬면서 자신의 신상을 표출하기 위해 소나무에 刻字⁴⁵⁾를 했던 것이다. 이 시는 士林들 사이에 많이 傳誦되어 서로 공감을 일으키고 슬퍼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⁴⁶⁾ 최악의 절해고도로 향하여 가는 충암의 심적 상황이 잘 묘사되었다.

45) 「海東野言」Ⅲ. “金提學淨 坐黨禍 杖流濟州 至海南之海涯… 吟成三絕 白松木而書之…”

46) 「海東野言」 “士林傳誦莫不憐之”

첫째 수는 그의 삶은 한때 화려했던 권좌의 절정에서 반대파의 모함으로 유배를 당하는 급전직하의 신세가 되어 이제는 한 나라의 기둥이 될만한 인물이 되기는 글렀다는, 자신의 처지를 자탄하고 있는가 하면,

둘째 수는 절후의 변화를 무시하고 한결같이 푸르기만 한 숲을 보고 땅 속깊이 뿌리가 박힌 그 덕을 찬양함으로써 의인화된 소나무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단순한 野松을 보고 느낀 감상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자신을 비롯한 지조있는 선비들을 숲에 비유하여 쓴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다.

셋째 수는 충암의 移配 路程은 끝없는 고통과 곤궁 속에서 소나무의 功을 如政⁴⁷⁾이 알고 尉爵을 준 것에 반하여 그의 고통스런 심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자탄하며 애절하게 부르짖는 절규의 탄성으로 표출하고 있다.

遺懷

海國恒陰翳	바다는 언제나 그늘져 있고
荒村盡日風	거칠은 마을에 온종일 바람
知春花自發	봄을 알리는 꽃은 피는데
入夜月臨空	밤이들자 하늘엔 달만 동두렷
鄉思千山外	천리밖 이역에서 고향 그리워
殘生絕島中	왕래드문 고도에서 잔명이어가
蒼天應有定	하늘은 운수를 정해 놓았을텐데
何用哭途窮	막다른 길이라 울어 무엇하리

위의 오언율시 「遺懷」에서는 유형수로서의 우울한 심적 정감을 통한 思鄉과 기구한 운명을 자탄하는 내용이다.

梟園罪人으로 느낀 바다와 바람은 ‘山高積雪經春在 海關長風盡日吹’에서 처럼 낭만적 정감과과는 달리 언제나 그늘져 있는 바다요, 온종일 거친 촌마을에 부는 바람 그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유형수로서의 자탄은 절해고도에서 잔명이 이어질 때까지 심화하는 것이다.⁴⁸⁾

47) 「大東野乘」Ⅱ. “如政은 진시황인데 大夫를 꺾한 일이 있다고 한다.”

48) 梁淳珪,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제주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 박사학위논문 1972. p. 64

현실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유형수의 내적 심경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어 유배생활의 고뇌를 나타내고 있다.

贈弟別

天畔纔懷切	하늘가에 얽매인 정회는 절절한데
分携葉脫初	잎이 떨어지기 전에 손을 놓았다.
汝歸應拜母	너는 돌아가 마땅히 어머니에게 절하겠고
兄住尙思吾	형은 살면서 더욱 나를 생각하리니
骨肉空幽夢	골육의 형제도 헛되고 아득한 꿈에서나 보고
親知各塞隅	친한 지기들도 각각 구석지에 막혀 있도다
海山瞻皎月	海山이 하얀달을 우러르고
風雨愼征途	비 바람이 갈 길을 조심스럽게 하는구나.

위 5언시 「贈弟別」은 충암이 증중 15년(1520) 윤 8월 9일 원악지 절도인 제주도에 위리안치의 명을 받아 유배지 제주섬까지 형을 따라왔었던 동생 易과의 이별을 표백한 것이다.

충암은 형제간의 우애가 두텁고 각별히 아우인 역을 사랑하였다. 그의 문집에서 「別弟易」을 보면 ‘汝去寧吾母 吾留阻我親 去留分汝我 吾汝本同身’⁴⁹⁾ 라는 5언시가 있다. 절구의 ‘吾汝本同身’은 형제간의 떨어질 수 없는 몸으로 생각할 만큼 끔찍히도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출되어 있다.

죽음의 땅에 혼자 남게 된 충암, 그리고 단독자가 된 외로움으로 떠나가는 동생과의 처절한 이별의 정한을 읊은 것이다. 그리운 형제, 지기들은 꿈 속에서나마 만나 보고 구석지에 갇힌 심경을 달을 통하여 그들의 영상이 반영되기를 기원한다. 충암의 유배한시에 있어서 달은 중개자의 역할로 자주 등장하여 아픈 가슴을 달래어주는 가장 큰 자연물이 되었다.

恨 맺힌 유배지를恨을 안고 찾아왔다 떠나가는 동생이기에 두恨의 만남이 옷자락을 젖게 했다. 형제 간의 이별의 기막힌 곡절은 이토록 애절한 슬픔을 자아내어 그 애수에 공감하게 된다. 이처럼 유배는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만이 아니라 인간의 단절이요 형제 간의 찬탈이었다.

49) 「冲庵先生集」, 卷3

이 시는 동생과의 처절한 이별의 정한을 읊은 비애미의 극치를 보여준 작품이라 할 것이다.

積 水

積水浮天極	수평선은 하늘끝에 닿았고
溟茫漾太虛	망망한 바다물결은 하늘에서 출렁이네
地孤疑世外	외로운 땅은 바깥 세상이 의심스럽고
人遠得卷餘	사람은 멀리 있어 남은 책 속에서 얻는다.
舟楫通吳楚	舟楫은 뭇楚를 통하며
魚龍平岳墟	魚龍은 옛 고을을 평정한다.
乘桴潛聖歎	조그만 뗏목을 의지하여 성인의 탄식에 잠기니
終不陋巖居	마침내 오랑케 마을에 사는 것이 추하지 않구나

원악지인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해천험의 섬이다. 이 곳에서 유배생활은 항상 어딜 가든지 보이는 건 '溟茫漾'이다. 충암을 비롯한 제주에 유배된 선비들은 바다 물결을 소재로 한 시들을 많이 썼다. 언제나 바다 물결에 근심을 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유배적 상황으로 보아 충암 자신의 감정의 유로를 바다와 하늘에 투영 시킴으로써 유배생활의 비극을 애절하게 호소하며 자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서 보여준 의지적 행동은 원망을 하지 않고 처세의 한 태도를 깨닫게 했다.

絕 國

絕國無相問	절해고도라 찾아주는 이 없고
孤身棘室圍	외로운 몸은 위리안치 되었으나
夜如關塞近	꿈은 관새 가까이 오락가락
僮作弟兄依	머슴애를 형제같이 의지했네
憂病工侵髮	수심의 병은 귀밑까지 침범하고
風霜未授衣	찬서리 바람부나 집에선 옷을 보내 주지 않아
思心若明月	그리운 마음은 명월과 같이
天末寄遙輝	저 하늘 끝에 멀리 빛을 전할까나

위 5언율시 「絶國」은 절해고도에 위리안치된 자신의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자탄한 시다.

「己卯錄補遺」에서 보면 충암은 두 차례나 형장을 받았으므로 杖毒이 치올라 아프고 고달파서 목숨이 실날 같은데, 한 번이라도 형장을 더 받는다면 반드시 죽고 능히 견디지 못하겠다⁵⁰⁾라고 쓰여 있어 重刑定配로 인해 병든 자신의 고통을 진정으로 토로하고 있음을 본다. 또한 頸聯의 ‘憂病工侵髮’은 杜甫의 「登高」에 나오는 ‘간난에 서리같은 귀밑털이 어지러움을 슬퍼 하노라’(艱難苦恨繁霜髮)과 그 시상이 비슷하여 초라한 몰골로 변하는 자신을 자탄하고 있다.

그러나 결구에 와서는 아득하고 막연한 절국의 공간에서 밝은 명월에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선망감이 나타나 있다. 그러한 선망감은 적요한 관조의 대상으로서의 풍경들을 통해 심화되고 또한 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심화와 분화는 유배생활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탄은 7언절구 「山雨」에서도 잘 표백되어 있다.

山 雨

蕭蕭山雨下茅庵	쓸쓸히 산비가 초막에 내리는데
秋老荒城晚色酣	늦가을 황량한 성에서 밤을 술로 달랜다.
故國山川魂自往	내 벗은 고향산천을 오락가락하건만
不知身在海天南	몸은 남쪽 바닷가에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네.

늦가을 초막에 내리는 비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한껏 애답게 보태고 있어 마음은 언제나 고향산천이니 孤臣의 회포는 깊어만 갔으리라.

쓸쓸하고 외로움이 배어 있으나 폭 가라앉아 여과된 정서로 시·공 속에서의 조화로 말미암아 격조 높은 철학이 깔려 있음이 이 시를 더욱 무겁게 한다. 뜻두고 오가지 못하는 사연은 오히려 감춰져 더욱 사무친다.

50) 「己卯錄補遺」上, “臣既受二次杖毒攻衝 腫痛憊憫性命如縷一杖必殞 不能自堪”.

결구의 ‘不知身在海天南’은 신라의 중 慧超의 “南天路 爲言”이란 시에서 ‘我國天
 岸北 他邦地角西(내 나라는 하늘가의 북쪽이건만 이 고장은 머나먼 땅 끝의 서쪽)와 그
 시상이 비슷하여 수 천리 타향에서 외토리 신세를 꺾는 듯이 그린 향수의 표백이다.
 시름으로 아로새긴 두보의 향수에 젖은 시는 타향살이의 하소연으로 절었지만 恨맺
 힌 유형수의 고향생각에도 볼모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듯 읽는 이로 하여금 동정
 마저 안겨주는 곡진한 심정이 넘난다.

雨

落木荒城雨	마른 나무가지 황폐한 성에 비가 내리는데
空堂獨坐時	빈집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遙懷在千里	천리 밖에서 고향 생각
誰與寄雲涯	누구와 더불어 구름가에 전하리

가을밤의 구성진 빗소리를 짝하여 호젓이 앉아서 고향을 그리는 작가의 뒤안이 눈
 에 선한 작품이다.

지금 천리 밖에 갈 길도 막힌 채 있는 나그네의 회포는 아득하기만 하고 쓸쓸히
 비오는 날이면 빈 집안에서 느끼는 恨과 고독이 더욱 표면화되어 자탄하게 된다. 그
 래서 두둥실 떠나는 구름에다 마음을 얹는 충암의 애련한 정감이 잘 표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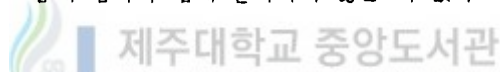
獨 立

漢羅山北月	한라산 북쪽에 달이 뜨고
溟海古今愁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근심인데
人共浮雲遠	사람은 먼 구름과 함께 떠 있고
潮通弱水流	조수는 弱水가 흐르는 것에 통한다
寒烟迷橘園	차가운 안개는 귤원을 덮혔고
白露掩蘭丘	백로는 언덕에 있는 난초에 가려졌다.
歇盡年芳暮	젊은 나이가 다 저물려고 하니
王孫何淹留	왕손은 어찌 머물게 하리요

한라산 북쪽 기슭에 떠 있는 명월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바다는 마치 간신배들이 날뛰는 어지러운 政局이듯 그 불안의 수위가 절실하다. 단절되어 기약할 수 없는 먼 곳에 부운처럼 떠 있는 자신은 스스로 살아 돌아가지 못함을 통감하며 탄식하고 있다. ‘白雲掩蘭丘……王孫何淹留’에서는 절대적인 절망상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러한 탄식은 결구에서 보듯 본래적 자아의 상실에 대한 풍자를 배경으로 처절한 자기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같은 자기 선언은 어떤 절규보다도 치열하고 괴롭고 불길하기만 하다. 이 시는 한치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자연물을 끌어들이어 자신에게 부딪쳐 온 엄청난 통한의 덩어리들을 투영시킴으로써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비로소 유배적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을 가능케 하고 있다.

晨 起

二年流落侶魚蝦	2년을 물고기 두꺼비 벗삼아 보냈더니
雙鬢蕭蕭半已華	양쪽 구레나룻은 쓸쓸하게 반은 이미 세었도다
魂夢不知滄海遠	내 정신은 푸른바다에 와 있음을 알지 못하고
春來無夜不還家	봄내 밤마다 집에 돌아가지 않는 때 없다



유배생활을 통해 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하여 자탄한 시이다. 근 2년간을 流落하다 보니 쓸쓸하게 양쪽 귀밑털은 반쯤 희었다. 앞서 살핀 시「絶國」의 ‘憂病工侵鬢’이란 내용과 그 시상이 비슷하다. 곧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갈등이 뒤엉켜 참기가 매우 괴롭고 지통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그의 정서가 좌절과 슬픔에 가득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허무감의 음영이 짙게 드리워져 있음도 사실이다. 결구에서 ‘春來無夜不還家’는 부분적으로나마 향유 하였던 삶의 세계 곧 봄이 돌아오면 되살아나는 순환적인 삶의 세계인데 귀가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상을 자탄하고 있는 것이다.

重陽日有作

海國風烟浩不收 제주는 바람과 안개 많아 추수도 아니되고
離人腸斷故山秋 이별에 애끓으니 정든 산은 이미 가을이라
淸樽黃菊重陽節 맑은 술잔 속에 황국 띄우는 중양절에
何處高丘憶遠遊 어느 높은 언덕에 올라 옛날 놀던 추억을 되새겨 보리.

위 7언절구「重陽日有作」은 중양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야지만 그리할 수 없어 맑은 술잔 속에 회향의 정에 젖은 충암의 심사를 승화시키고 있다. 곧 그가 바다로 막힌 외딴섬인 유배지에서 피붙이 살붙이로 맺어진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는 정을 표백한 것으로 그리움의 진정을 腸斷의 恨으로 느낄 정도다.⁵¹⁾

「海島錄」에 수록된 대부분의 시는 그의 골수에 서리고 가슴 깊이 맺힌 그 응어리가 정한과 회향의 정서 속에 녹아 흐르면서 검붉게 역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어 충암은 유배지에서 회향의 정을 참지 못해 저무는 봄날에 술잔에 기대인 가련한 심사가 더더욱 무겁게 만든 다음의 5언율시「春暮」가 있다.

春 暮



愁思縈遊絮 수심스런 생각은 숨처럼 얽혀서
隨風過海門 바람따라 해협을 지나니
心情懸素月 내 심정은 밝은 달빛에 걸고
流景照鄉園 흐르는 빛은 고향 동산에 비추어라
永日扃幽戶 온종일 문잠긴 집에서
淸宵倚短垣 맑은 날에 울타리에 기대었다.
不堪頻北望 자주 북쪽을 바라보며
春暮且傾樽 저무는 봄에 또 술잔을 기울린다.

51) 梁淳秘, 전제서, p. 85

허구한 날을 시름과 눈물로 먹을 갈았던 충암은 저무는 봄 앞에 술잔을 기우리며
北望한 마음이 더없이 안스럽다.

곧 냉혹한 현실 앞에 고향을 향한 마음이 역력히 나타나 있다. 그 복받치는 회향
의 정을 받은 달빛에 실어 그리운 고향 동산에 비추어 주길 바라는 그윽한 심경의
표출이며 이것이 幽懷를 儉閑으로 삭히는 충암의 기교이다.

晚 望

秋陰起將暝	가을 그늘이 일어 어두어지려 하는데
迢遞倚荊扉	멀리 바라보며 사립에 기대었네
虛蕪變蘆悄	빈 숲에 귀신 도깨비 슬프고
冥烟島嶼微	어두운 연기에 섬들이 희미하다
眼穿孤島盡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니 희미한 섬에 의지했고
思逐片雲依	마음은 조각 구름을 좇아 의지한다
一葦豈云遠	한가닥 갈대 같으면 어찌 멀다고 이르리요마는
人遐自未歸	사람은 먼 곳에 있어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네.

의지할 곳이라곤 荊扉·片雲 밖에 없는 유형수의 孤寂한 생활모습을 잘 표백한 시
이다. 충암 자신은 외딴섬에서 그리움에 사무치는 기구한 존재가 된다.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심경에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아도 그림고 눈시린 고향은 보이지 않는다.
희미한 섬들만이 이 세상을 뒤덮어 있다. 그런 가운데 한맺힌 유형수로서 유배지에
서 결국은 불운과 충암의 회향의 정감은 한층 더 절실하게 마련인 것이다.

有 寄

孤客逢新歲	외로운 나그네가 새해를 맞으니
芳華逐日新	날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고
故林無限意	고향은 정한 뜻이 없으니
書付北歸人	편지를 북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부친다.

위의 5언절구 「有寄」는 악몽의 기묘년을 보내고 유배지에서 새로운 해를 맞는 충암의 암울한 내면 세계를 표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소생의 희망과 기대를 더하게 하는 봄이지만 자연이 주는 은혜로움과는 일치될 수 없음을 여기며 회향에 잠긴 나약한 유형수의 모습일 수 밖에 없다.

靜的인 자연과 動的인 인간의 마음을 대칭시킴으로써 외부세계에서 바라본 내면세계의 대조적 표현이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悼文士豪

酒醒時想君	술을 깨고서 그대 생각하니
森然入我目	그대 모습 눈에 삼삼하네
何知百年意	어찌 백 년 사는 삶의 뜻을 알리오마는
遽作炊黍熟	갑자기 불을 때니 기장이 익어가네
殘棊散不收	바둑알이 흩어져도 다시 거두지 않으니
何人來整局	어느 누가 와서 판을 정리하리오
豈無壺樽會	어찌 친구가 없으리오마는
要非心所屬	중요로이 마음 내키는 사람이 아니라네
絕國禦魑魅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도깨비를 막고
逢人多趨避	만나는 사람마다 종종 걸음이 많구나
淳質剗崖畦	순박한 성질은 절벽과 구름을 깎아내고
披展襟懷足	가슴을 열고 회포를 풀었는데
君今爲異物	그대는 이제 귀신이 되었으니
何地開心曲	어느 곳에서 개심곡을 불러볼 것인가

耽羅有斯人	탐라에 그럴만한 사람이 있었으니
嗚呼云不淑	슬프라고 말함도 잘 표현되게 아니로세
母老兒女稚	어미는 늙고 아이들은 어리니
萬事付隍鹿	만사를 황록에다 부치네
浮生實可嗟	뜬 인생, 실로 탄식뿐이니

來日未能卜	내일을 능히 점칠 수가 없구나
縱有泉下期	만일 저승길의 기약은 있다 해도
冥茫恐難前	아득하고 멀어서 아마 보기 어려울 것이로세
寢寐尙云可	잠이야 그럭저럭 이룰 수 있다지만
空軒耐幽獨	빈 난간에서 깊은 외로움을 참아야 하네
丁丁復丁丁	정정 또 정정하여
古人吟伐木	고인은 나무 베는 소리를 읊어 보냈거늘
有知與無知	알게 모르게
寄此一聲哭	여기 일성곡을 부쳐 보내네

인생의 무상함을 안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비탄에 빠지기도 한다.

이 시는 충암의 제주도 유배기간 동안에 알게된 文士豪⁵²⁾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신의 추구하였던 것이 보잘것 없는 뜰구름과 같다고 인식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탄식한 작품이다.

예술가는 허무라고 하는 견딜 수 없는 진리를 베일에다 싸서 감춘다는 지극히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람은 비극이라고 하는 예술의 조정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되찾고 새로와지는 것이다. 허무주의적 절망은 오로지 미적 해결에 의해서만 극복되었던 것이다.⁵³⁾

그나마 유배지에서 정을 달래고 酒友할 수 있었던 벗과의 死別은 呑聲의 비극이요, 무상의 현장감이다.

남이 나를 그리워해 주고 내가 또 남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의 기미, 生者에 대한 그리움, 死者에 대한 추모하는 정 이것이 이른바 인지상정이다.

죽음의 땅에서 맺은 충암의 우애가 죽은 이에게 뜨겁게 傷悼의 눈물을 뿌리게 한다. 그것이 그의 문자를 질게 물들여 오늘의 우리들에게 뜨거운 정한을 느끼게 한다.

52) 「海島錄」의 夾注에 ‘士豪名世傑 耽羅之傑也…’

53) 클릭스버그, 「20세기 문학에 나타난 비극적 인간상」, 이경식 역, 종로서적, 1985. p. 48

앞의 시에서는 친구의 죽음에 이른 직후의 충암의 심적 정황을 표백하고 있다. 인생이 죽음으로 종말이 왔다해도 실감할 수 없는 감회에 빠져 아직도 文士豪의 숨결을 호흡하듯한 감정을 느끼며 잊을 수 없는 그와의 교분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뒤의 시에서는 母老兒女를 남겨두고 떠난 현실적 상황을 바라보며 인생무상의 슬픔을 자아내어 문사호에게 일성곡을 보내야 하는 충암의 침울한 심사가 이 시를 더욱 무겁게 한다.

去 國

去國投巖微	서울을 떠나 유배지에 버려져
殘骸半死生	남은 골육은 반은 죽은것 같네
羈窮分不憫	속박된 생활이 가련함을 면치 못하니
骨皮正關情	가족생각에 정이 메어있네.
天地容何大	천지는 어찌 너그럽게 용서할꼬.
溟濤齊後平	바다의 큰 물결도 화평한 후에 다스리고
如同何陋志	어찌 더러운 뜻과 같겠는가
魍魅足群行	도깨비 족속들이 행진하네

위의 7언율시「去國」은 죽음의 땅, 유배지에서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신의 신상을 자탄한 것이다.

쇠약한 몸은 半生半死되어 예전에는 六卿의 벼슬 자리에 있었던 충암으로서 유배 생활이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기에 한때의 그 兀然한 자세도 찾아보기 어렵다.

유배지에서 그는 마디 마디에 맺혀있는 정한을 통감하여 비통한 눈물로 여과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贈別安子

○州天欲盡	○州的 하늘은 어두워가는데
舉目絕朋儔	눈을 들어보니 친구들과 떨어졌네

飛越千里浪 천리의 물결을 넘어
 來者萬里囚 만리 죄인이 오네,
 將歸正春暮 장차 봄이 저물면 돌아가려 했으나
 失路更離愁 길을 잃고 다시 떨어져 근심하도다
 相望南溟岸 남쪽 바닷가를 바라보니
 遙心逐去舟 마음은 멀리 있어 가는 배를 쫓는구나

친한 이들과 떨어져 있음을 느끼며 굽이도는 물결도 천겁이나 되니 이 모든 아픔이 바로 충암 자신이었을 것이다. 앞서 살핀 시 「遺懷」·「夢」·「雨」에서의 千里라는 시어는 거리감이 이 시에 와서는 ‘萬里’라는 공간으로 변화, 확대되어 있다. 곧 왕도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음을 느낀다. 봄이 저물면 고향에 가려했으나 유흥수의 몸이 되어 돌아가지 못하고 해천가로 가는 扁舟에 마음을 의탁하는 충암의 안스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기다림의 고통과 서로 떨어진 사이의 정신적 시련의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충암의 인식된 현실이 암담하게만 착색되어 詩的 自我는 철저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贈 別

回首送君處 고개를 돌려 그대 보낸 곳을 바라보니
 蒼茫海日昏 넓고 아득한 바다엔 해만 뉘엿뉘엿 저가네
 家山應見過 고향을 마땅히 보고 지나련만
 花落掩柴門 꽃잎이 떨어져 닫혀진 문을 가리는구나.

위 5언시 「贈別」은 별한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 곧 고향에서 늙고 병든 노모의 생각에 한층 가슴이 아프다. 한때 유배 중 노문의 간병으로 무서운 고문을 당한 처지였던 충암은 아픈 가슴이 메어짐을 느낀다.

충암은 유배지까지 함께 와서 떠나가는 이의 모습과 아득한 바다 속에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순간과 일치시키면서 고통과 번뇌를 되씹는다. 그럴수록 마땅히 보고

픈 고향, 그러나 그 고향을 떠아온 자신은 꽃잎이 스스로 떨어져 사립문을 닫아 비
통에 젖는 것이다.

驛亭別

驛亭分袂日 驛站의 정자에서 헤어져
溟海遠征時 아득한 바다 건너가니
此別情思在 헤어지던 정한이 생각에 있듯
應將金石期 마땅히 금석같이 굳은 기약을 하리.

絕國孤生別 유배지에서 외로이 생이별하니
溟波未有期 아득한 물결에는 아직도 기약이 보이지 않네
贈君皎明月 임에게 희고 밝은 달을 보내고저
天末寄相思 하늘 끝에서 그리움만 부치누나.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기정사실화 되었음을 알고, 좌절과 미련의 상호 엇갈린 감
정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보이고 있다.

생이별의 통한을 굳은 기약으로 달래보고 북향하여 임에게 밝은 달을 보내고저 하
늘 끝에 부치는 그리움의 단층과 별한의 정감을 표백하고 있다.

여기서 달은 충암 자신의 이상적 자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유배지에서 별한을 노
래하면서 임에 대한 사랑을 자아 사랑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을 달을 빌
어 표현한다는 것은 유배시가의 구조이기도 했다.

이상으로 충암은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갈등을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애절
하게 자탄하고 있다. 이것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거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그는 주로 회향, 별한, 통한, 인생무상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자탄하고 있는데, 특
히 달에 비친 자신이 모습과, 꿈을 통한 희미한 바램들로 현실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했다. 그의 「海島錄」에서 자탄이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은 유배 한시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준다.

3. 自我省察

탐라는 환상의 섬도 낙원의 섬도 아니었다. 변화무쌍한 파도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절해고도, 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었다.

사회로 인해 유배되고 소외된 우울한 감정으로 세태의 응시를 통해 지난날을 회고하며 객관적 자아의 성찰을 표백하게 된다.

一 撮

一撮耽羅島	한번 탐라의 섬을 바라보니
浮空若冠鰲	푸른 하늘에 자라를 얹어 놓은것 같고
擧頭猶日月	머리를 들어보니 해와 달 뿐이며
入眼盡溟濤	눈에 들어오는 것은 푸른 바다 뿐이다.
秋色荒墟莽	추색은 거치른 옛터마냥 초목이 우거지고
巒烟悄海阜	되만의 안개가 근심스레 바닷가 언덕에서 피어난다.
顧慚知止戒	돌이켜 보면 지계를 알지 못함이 부끄러워
聿托遠遊驪	먼 곳에서 글짓는 것에 의지해야겠구나

위의 5언율시 「一撮」은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여 충암이 지계를 모르고 지낸 지난날을 회상하며 자아성찰을 노래하고 있다.

원악지, 환해고도, 절해고도, 절도위리안치…… 이러한 말들은 유형수가 당하던 수난과 환난과 재난을 상기시키는 것들이었다. 유배지의 이채로운 풍경이 눈앞에 전개되면서 탐라의 섬은 관을 쓴 자라 같이 보인다. 변함없이 일월은 충암 자신의 충을 상징하기도 한다. 거치른 가을바다 큰물결이 해안가에 일어 더욱 쓸쓸함을 느끼게 하면서 자신의 止戒를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성찰하기에 이른다. 결국에 와서는 그 깨달음을 글 짓는 일에 의지함으로써 유배지에서 새로운 삶의 구원처를 모색했다. 이렇게 하여 죽음의 땅에서 소외된 자신을 달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又

少年師古訓	소년 시절에 옛 훈계를 스승으로 삼았으나
意拙謾多癡	뜻이 졸렬하여 많은 어리석음을 범했다.
道在名何用	도가 있는 곳에 명성이 무슨 소용인가.
官成殆亦隨	벼슬을 하는 것도 또한 위험이 따르니
世事應前定	세상 일은 응당 먼저 정해졌고
行身未早知	몸소 행하는 것을 일찍 알지 못하여
餘生倘有悔	남은 여생 혹시 후회가 있을까
來日庶能追	내일부터 능히 따를 수 있으리라

위 5언율시「又」는 세태의 응시를 통한 자신의 뉘우침과 후회없는 삶을 다짐해 보려는 정감을 노래한 작품이다. 소년기에 배운 옛 가르침은 이상정치 실현에 있었다지만 관직의 세계는 본래부터 험난한 것(宦海由來最險難)⁵⁴⁾으로 빠져리게 느낀 충암은 자신의 괴로움을 儒家의 운명론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살핀 5언시「遺懷」속의 ‘蒼天應有定’과 위의 5언시「又」속의 ‘世事應前定’ 그리고 충암의「濟州風土錄」속의 ‘亦冥數前定’에서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과거를 통한 현재와 미래를 무한한 사념으로 표현하면서 정치권 밖에서의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和李德翁

地偏炎徼春歸早	남쪽에 치우쳐진 곳이라 봄은 일찍 돌아가고
天盡南溟雁到遲	하늘끝 남쪽 바다에는 기러기가 늦게 온다
荏苒星霜隨客夢	세월은 늦어 나그네가 꿈에 따르니
蕭條心事見君詩	쓸쓸한 심사는 임의 시를 바라보네

54) 權近(1352-1409), ‘次龍宮客舍板上詩’ 참조

西北浮雲遠 서북에 뜬 먼 구름아
 溟波望不窮 바다물결을 바라보는 것은 끝이 없고
 無私唯白日 오직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有命信蒼穹 운명은 진실로 하늘에 맡길 수 밖에

위의 「和李德翁」은 칠언절구와 오언절구로 되어 있다. 앞의 시는 계절의 변화에 아쉬움과 그리움을 느끼며 외로운 나그네가 꿈에 따르는 호젓한 심정을 읊었다. 뒤의 작품은 자신의 유배가 한스러운 내침이지만 훗날 성운을 입어 결백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사무치는 정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이상을 그리면서 막연한 동경을 품고 살아간다. 그래서 전자의 칠언에서는 ‘기러기’라는 새를 통해 자신의 가련한 소식을 전하여 줌으로써 生還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 ‘기러기’는 소식을 알려주는 새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 선인들의 감정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나그네가 꿈에 따르는 것은 억압된 욕망의 표현이며 억압된 욕망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심적으로는 그것을 이루려고 못내 기대하는 대상을 이르는 것이다. 유배리는 한계상황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꿈을 통하여 이루어 보겠다는 뜻이 서려 있는 것이다. 또 뒤의 오언절구는 결백한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자신의 삶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정신적 의지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하게 자기 삶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5언시 「夢先」에 와서는 유배된 자신을 진정으로 성찰해 보면서 막혀오는 가슴을 억제하며 좌절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며 자탄에 잠기는 것이다.

夢 先

乖時悲學道 어지러운 때는 도를 배운 것이 슬퍼지고
 身辱愧移忠 몸에 욕을 당하고 보니 충성을 바꾼 것이 부끄럽네,
 宿草荒丘壟 해묵은 풀은 선조의 무덤 뒤덮어

時羞關羹供 계절에 따라 나는 음식은 올려보지 못했다.
 憂喜精先感 근심과 기쁨은 정령이 먼저 느끼니
 幽明氣本通 유명의 기는 본디 상통하여서일까
 劇情翻易覺 애달픈 정에 그만 깨고보니
 餘淚悵幽忡 흐르는 눈물 가슴에 매어오네.

충암은 유배된 자신을 진정으로 성찰하면서 자신을 돌이켜 보는 정감을 노래하고 있다.

5언율시「夢先」에서 충암은 당대에 부르짖었던 儒學思想인 忠孝의 道를 다하지 못하고 조상에 대한 죄스러움과 근심으로 얼룩져 있음을 노래하며 孤臣冤淚로 삭혀야 하는 애달픈 심경으로 자탄하고 있다.

충암은 처절한 갈망과 좌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것을 자신의 운명 속에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어리석음과 반성하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마련한다. 이것이 충암의 삶의 자세요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절망을 극복하는 의지이기도 했다.

4. 自然愛

유배지에서 그 좌절과 패배의 진통이란 마음의 상처를 달랠 곳은 淸淨한 자연이었다. 조선조 정치,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자연을 찾았고, 그것은 자연과 인간성의 일체화, 그리고 地上仙界의 內在와 구축의 기원이었다. 곧 절망자의 보신처요, 白衣의 신념과 사상세계를 구현하려는 자연은둔인 것이다.

충암의 자연애는 성장과정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유배지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의 문학상의 소요자적은 곧 생활상의 수기이자 자아극복의 수단이었다.

충암은 속세를 벗어나 은둔·도피하려는 심정으로 자연애의 물입을 보여준다.

寓興

迢迢雲影小窓陰 아득한 구름 그늘이 살짝 가리고
 虛室無人伴獨斟 벗 없이 빈방에서 홀로 잔을 기울인다.
 唯有隔林禽鳥樂 오직 성긴 수풀사이 새 울음만 짓어대며
 提壺終日弄春音 술병 끼고 앉아 하루종일 봄을 즐기네

숨가쁜 현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저절로 脫俗·避世하여 은일적 취흥에 젖는 정감을 토로하고 있다. 충암은 자신의 고독하고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홀로 자음자적하며 절대고독의 순간을 맞이 한다. 곧 대작할 수 없는 獨斟의 무미함을 통감한다.

한가로운 소외와 죽음과 같은 한가로움 속에 느끼는 한과 고독이 더욱 표면화되어 나타난다. 고독은 바다속 깊이와 같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에 囚人의 모든 심리를 점령하였을 것이다. 오로지 성긴 숲 사이에서 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봄 날을 보내는 시인의 애뜻한 환경에 저항하기보다는 홀로 한숨 짓는 것이 오히려 알맞는 바탕일지도 모른다.

寥落



寥落幽軒散奕棋 쓸쓸히 어둠갈린 난간에 호기가 널려있고
 柴門無客掩多時 사립문 앞 찾는 손 없어 닫힌 지 오래인데
 階庭鳥雀遲春晝 뜨락엔 까치새가 봄낮을 더디하고
 柿葉陰中理網絲 감나무 잎이 드리운 그늘 새로 햇살이 그물같이 비치네

유배생활의 寥寂함을 달래며 탈속의 길지에 깊이를 더해가는 은일적 정취가 높게 풍기는 시적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외제와의 능동적 교섭의 부정된 좌절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면의 세계이다. 승구의 닫힌 사립문 안에서는 내면의 세계로

안주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자신의 것이며 수호해야 할 영토이다. 결국에 와서는 내면의 세계가 더 한층 확충되어서 실같은 햇살이 평화와 분위기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평화의 분위기, 행복한 삶, 유모피아에의 욕구가 절실한 만큼 역설적으로 그 불안의 심도는 깊어진다. 어쩌면 그 길은 여전히 미지인 채로 남아 있을른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불안극복의 방법은 유배적 현실에서의 심리를 표명하거나 반대로 고통받음에 대한 위안과 위로에서 얻어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유배라는 삶 저편에 있는 순수성을 지향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순수성의 모습이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자연에의 귀의인 것이다.

聞方生淡牛島歌以寄興

瀛洲東頭繁扑傾	영주의 동머리에 큰 자라가 기울어
千年閣影涵重溟	천 년 깊숙한 그림자가 바다속에 잠겼구나
群仙上訴攝五精	群仙들이 하늘에 빌어 오정을 잡았는데
鼯鼠一夜轟雷霆	어느날 밤 큰 힘을 내어 우뚝소리 울렸네
雲開霧廓忽湧出	구름 열고 안개 걸쳐 홀연히 솟아나니
瑞山新畫飛王庭	서산의 새 그림이 왕정에 날아갔네
溟濤崩洶噬山腹	바다물결 요동하여 산 허리를 헐어내니
窟衍洞天深雲扃	팅빈 동천에는 구름만 깊었네
稜層鏤壁錦纈殷	능층과 누벽에 비단무늬 아롱지고
扶桑日照光晶燦	부상에 햇빛 비치니 더욱 밝구나
繁珠凝露穢輕濕	구슬같은 이슬은 엉키어 쏟아지고 습하니
壺中瑤碧森列星	둘러싸인 벽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운행하네
瓊宮淵底不可見	아름다운 궁전의 못 밑을 볼 수 없건만
有時隱隱窺窓櫺	이따금 은은히 창살만 엿보이네
幹輶奏樂馮夷舞	황제는 풍악하고 해신은 춤을 추니
玉簫竽篠來青冥	옥소리 고운 소리 하늘에서 들리는 듯
宛虹飲海垂長尾	완홍은 바다에 취해 긴꼬리를 드리우고
翁鷗戲鶴飄翹翎	큰 鷗은 학을 놀려 날개짓을 나부낀다.

.....

.....

水咽雲暝悄愁人 雲暝에 물 솟는데 근심하는 사람은
 歸來惘兮夢未醒 돌아옴이 아득하여 꿈도 아직 못깨었네.
 嗟我只道隔門限 슬프다 나는 다만 문 막는 한 이르노니
 安得列甓來風冷 언제면 열수를 얻어 찬바람을 탈 것인가.

이 시는 牛島의 황홀한 비경과 작가의 어두운 내면세계를 조화있게 그린 작품이다. 충암의 7언배율 「牛島歌」에 대해 魚叔權의 「稗官雜記」에서 “金冲庵의 제주에 귀양가서 方生의 牛島를 이야기한 노래를 지었는데 꼭 귀신과 신선의 말 같았다. 내가 駱村 朴公에게 묻기를 충암의 우도가 어머한가 하니 낙촌이 대답하기를 세상에 長吉을 제외하고는 어찌 이런 작품이 있을 수 있는가 하여 보는 바가 나와 같았다”⁵⁵⁾ 라고 기록하고 있다.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그의 “우도가는 아득하고 황홀해서 숨어들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여 제주 있는 사람다운 숨씨를 다했으니 申企齋는 그를 長吉의 무리라고까지 칭찬하였다⁵⁶⁾”고 하여 황홀하고 그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옛 「史記」에도 우도의 경관을 기록한 부분이 있었는데 「輿地勝覽」과 「南冥小乘」· 淸陰의 「南槎錄」 李衡祥의 「南宦博物」 등에 거의 비슷하게 적고 있다.

이 시에서는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상처와 소외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우도라는 자연을 노래하면서 자연을 통한 황홀함에 잠겨 현실을 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환상에서 현실의 삶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허전함과 고독과 절망으로 우수에 젖어 버리게 되는 심정을 작가는 일관성있게 토로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유배의 현실이 내포하는 폐쇄성, 은밀성을 벗어나 자유의 전망으로서 유배적 현실을 역류하는 힘을 牛島에서 얻고 있음을 보게 된다.

55) 魚叔權 「稗官雜記」 3. “金冲庵竄濟州 作方生談牛島歌 正如鬼仙之語余門駱村朴公曰 冲庵牛島歌如 駱村曰 世間除長吉 安能有此作 所見與余同也”

56) 許筠, 「惺叟詩話」 “其牛島歌妙冥倘惘 惑幽惑類 極才人三致 申企齋推以爲長吉之此也”

牛島의 仙境이 작가의 마음 속 깊이 자극을 주었다면 外界에 비친 환상적인 대상이 증발하여 완전히 사라진 내면세계는 좌절일 수 밖에 없고, 참담한 상태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외부세계의 最極의 佳境과 내면세계의 악조건 속에 잃어버리고 없어져 자신과의 대칭적 구조로써 표현하고 있다.

이 「牛島歌」에서는 우도를 노래했다지만 ‘畫間明月’⁵⁷⁾이 주제와 소재가 됐음을 알 수 있다. 충암의 본 우도는 우도의 생성·신비로운 전설적인 사연·과도로 깎인 해안선 아름다운 암벽과 파도소리·아침 햇살에 반사된 영롱한 무지개·주변을 황홀하게 하는 禽鳥 명암이 조화를 이룬 섬마을·깊은 물에 잠긴 신기한 海底 특히 섬주위에 많은 절경과 신비로운 모양을 간직한 태고의 모습들을 다양한 소재를 통하여 우도의 황홀한 배경으로 표현한다. 結에 와서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하고 있다.

자연에 파고들어 그 아름다움에 몸을 던져 마침내는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에의 은둔은 자연과 인생과의 긴밀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에 담긴 거룩한 기운을 호흡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 미에 심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충암의 은일적 태도야말로 자연을 노래함에 있어 보다 진솔할 수 있고 보다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죽음의 유배지이지만 자연 속에서 閑適하는 풍류마저 앗아가지는 못했다. 자연의 미화로 현실에 시달린 심사를 달래고 있다.

「海島錄」에 수록된 충암의 유배 한시는 전 편에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인간적인 자탄 우수와 고뇌의 심경을 표백하고자 하는 바람이 서려 있다.

多 字

十里烟村細雨過	멀리 연기에 쌓인 마을에 가느다란 비가 오는데
平郊芳草綠如羅	평평한 들에는 꽃다운 풀들이 마치 비단 같다.
邊城春盡無人惜	변방의 성에 봄은 다하니 아깝게 여길 사람은 없고
唯有詩翁情緒多	오직 詩翁의 정서만 많다.

57) 畫間明月이란 환한 낮에 밝은 달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낮달이 뜨는 것이 아니고 속칭 「광대코지」 절벽의 바다와 맞닿는 곳에 동굴이 있어, 이 동굴에 달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상오 10시-11시경이면 바닷가를 비추는 햇살이 천정에 반사하여 주변의 철분과 유황분의 광채를 띠어 마치 달과 같이 빛난다는 것이다.

자연경에 침잠하면서 春盡의 아쉬움에 이제는 오직 문학 속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있다.

원악지의 성에 지나는 봄을 알리듯 가느다란 봄비가 내려 자연이 생동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는 봄을 미련없이 보내지만 유배온 자신은 생동하는 자연과는 달리 자신의 마음은 외계와의 관련을 떠나 하나의 독자적인 실체로 존재한다. 그것은 타인과의 교감, 가능성이 자명하게 열려있지 않은 '내혼자'만의 고립된 주관성이다. 특히 시인의 심사와 꽃이 지는 늦봄의 광경이 마주치는 조화가 선명하게 표현되었다.

懶

謫居人事絕	귀양살이에 인사가 끊어져
却與懶相宜	문득 게으름이 마땅하다
書亂多無次	책은 산란하여 차례가 없고
畦荒半不治	밭도 황무하여 반은 다스리지 못했다.
睡眠侵午足	잠은 한나절이 되어야 만족하고
枕席趁涼移	베개 자리는 서늘한 곳을 따라 옮긴다.
人散酒醒後	술에서 깨어보니 사람들은 흩어졌고
月明閒夜時	달이 밝은 한가한 밤이로다.

이 시는 劉白 張姚의 체를 모방한 시다⁵⁸⁾ 시인이 게으름이나 잠 혹은 술을 통해 상상의 공간을 마련한 것은, 유배적 현실을 깨뜨리기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그 환몽의 세계에 깊이 빠져 들어가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의 공간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微風和雨

微風和雨正廉纖 미풍은 비와 조화를 이루니 정말 깨끗하고 가냘프고

58) 「海島錄」 협주에 “効劉白張姚體”라 쓰여 있다.

烟景芳華入望添 안개 빛은 꽃처럼 화려하니 바라는 마음 더하다
 誰送天涯春色遍 누구가 봄기운을 하늘끝에 미치게 할고
 滿城花絮撲青筩 숨같은 꽃들이 성에 가득하니 푸른 기를 두드린다.

위 7언절구 「微風和雨」는 유배생활에 직면한 상처와 소외된 자신을 달래기 위하여 자연애를 노래하면서 언젠가 자신도 압담한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뜻이 나타나 있다.

유교적 현실지향의 사상이 그 구현 과정에서 현실과 충돌하거나 좌초될 때 우리의 先人들은 새로운 삶의 구원처를 모색하였으며 그것은 인간의 세속적인 좌절감을 포용하는 의연한 자연이었다. 자연에 의탁하면서 그 자연의 수장하고 영원함에 대하여 인사의 속절없음을 한탄하였으며 자연에 동화됨으로써 人世에의 배신과 허탈감으로부터 구원받으려 하였던 것이다.⁵⁹⁾ 충암의 이 시는 원시자연과의 淸淨을 통해 도학자로서 깨끗하고 초일고매한 인품이 엿보인다. 자연이 주는 선명한 이미지로 부각시키면서 선경을 방불케 하는 자연경에서 靑筩을 두드리 자신의 마음을 달랜다.

압담한 유배지에서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한 생활을 영위하여 오로지 군자의 성정을 닦는다. 명경지수의 시심과 안민낙도의 도심으로써 선경을 방불케 하는 자연경에서 충암의 성정을 표백한 이른바 순정성이야말로 바로 유배 한시의 전체일 것이라 믿어본다.



謝李子蕃送秋露走書

故人知我意 옛 친구는 내 뜻을 알고
 斗酒慰窮愁 한말 술은 근심을 위로하네
 窮愁問如何 곤궁한 근심이 어떤 것인가 물으면
 御魅爲孤囚 외로운 죄인을 위하여 귀신을 막아주는 것이라
 絕國隔天海 절국은 천해가 막혀

59) 李英姬, “韓國時歌의 傳統에 대한 고찰”, 「韓國言語文學」 23집, 한국언어문학회 1984, p. 152

親知頌悠悠	알고 있는 친한 이들은 아득히 멀어
一醉當萱草	한 번쯤은 흰초를 먹으며 취하니
囊罄瓶盡羞	은갖 술병들이 부끄러워진다.
披書展緘封	책을 풀어 헤치고 함봉하면
忽若神所謀	문득 신이 일을 도모하는 것 같다.
意重雙壁贈	마음의 뜻은 거듭 쌍벽을 주고
未當憂先憂	일찌기 먼저 병나을 것을 근심하지 않았다.
酌以紅甲螺	붉은 소라 껍데기로 술을 마시면
清如露凝秋	맑기가 이슬이 몽쳐있는 것 같고
流霞漸薄味	유하주가 오히려 맛이 없고
肯數平原郵	자주 평원을 달리는걸 즐기면
快傾便開襟	옷깃틀 날리듯 가슴이 후련하며
天地同浮漚	천지가 동시에 떠다가 물거품이 된다.
與君雖兩地	비오는 곳에 그대와 더불어
醉鄉通神遊	고향생각에 취하여 신이 노니는 것과도 통하고
壺中可藏眞	술병속에 가히 진리가 감춰져 있으니
何用尋蓬丘	어찌 신선만을 찾으리오
感愧故人恩	옛 친구의 은혜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窮途不我譴	험한 길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다
瓊瑤諒難投	귀한 구슬은 주기가 어려워
唯將木瓜酬	오직 앞으로 木瓜에 권할 뿐이구요.

이 시의 제목에서 나오는 ‘李子蕃’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送秋露’(술)를 보내움을 볼때 상당히 가까운 벗인 듯하다. 그래서 돈독한 친구의 ‘송추로’는 충암의 口腹을 채울 수 있었을 것이고 비록 천지가 막혀 친한 벗들과 헤어져 있지만 외로움 고독·절망·그리움 등을 술로서 위로가 되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壺中可藏眞’이라 함은 李白의 「月下獨酌三首 其二」⁶⁰⁾ 중에 ‘但得酒中趣’와 그 사상이 비슷하여 전부

60) 申石艸, 「李白詩選集」, 瑞文堂 1978. p. 26.

한 삶을 벗어나 仙人의 경지에까지 이른 느낌마저 들게 되는 것이라 보인다.

결연에 이르러 '瓊瑤諒難投 唯將木瓜酬'라 했음은 '이자번'이 보내준 '송추로'에 대해 값진 '瓊瑤'를 보내지 못하고 하찮은 '木瓜'에 권함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詩經」⁶¹⁾ '木瓜' 詩 중에 '投我以木瓜 報之以瓊瑤'에서도 과일과 구슬을 서로 던지며 받는 애뜻한 사연이 담겨 있는 것처럼 충암의 마음과 상통할 수 있으리라 본다.

고려사대부는 酒·歌·舞의 관능적 향락을 서정으로서 마땅하게 생각하였고, 조선조 양반은 그것을 서정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다.⁶²⁾ 이것은 고려사대부는 향락을 풍류로 생각했고, 조선조 양반은 유교를 國是로 삼은 까닭에 도학자들에게는 성정을 흐리게 하는 못마땅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여기서 충암의 酒興은 진정을 찾자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송강 정철처럼 從酒荒色 하는 嗜酒癖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송강 정철의 시에는 已斷酒, 未斷酒, 戒斷酒⁶³⁾ 하여 술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있다. 그러나 유배생활의 '송추로'는 충암으로 하여 詩眼을 깊게 하여 주는 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奉儒守官을 생활의 신조로 修己治人을 술선해서 남달리 적극적 인생을 살았던 충암이 酒興에 젖었다는 것은 유학자의 學理 일변에도 도가적인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유가적 은둔은 현세에서 용납되지 못할 때 나타난다고 한다. 본 시에서의 醉樂과 神仙思想은 충암이 道家라기 보다는 기왕의 실의를 달래는 한 방편으로 타고난 성품과 성장 배경에서의 연유된 듯 하다. 충암이 처음에 老莊에 빠졌음을 볼 때 더욱더 확실해 지리라 본다.

寄三池

耽羅花已盡 탐라에 꽃은 이미 지고
塞上亂驚沙 변방에 먼지만 어지럽네
江海平生夢 자연에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因聲寄楚些 물소리를 따라서 남쪽에 의지한다.

61) 詩經, 李元燮(譯解), 修文書館, 1983, p. 101.

62) 崔珍原,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p. 53

63) 「松江集」, 靑丘大學出版部, 1961, p. 108, "母念我酒 此後將息... 家間書"

혼탁한 조정의 상황을 개탄하며, 동서남북 갈 곳 없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 자생적 자아구제의 몸부림을 쳐야만 했다. 그래서 절박한 그에게 강과 바다는 극한상황에서 뚫어낸 자기실존이었다고 본다.

북

瘴海炎雲旦夕蒸 검푸른 바다에 붉은 구름이 온종일 뒤덮어
林叢蓊鬱足蚊蠅 숲풀이 우거져 모기와 파리가 많다.
心飛入萬峯巖洞 마음은 만봉암동으로 날아 들어가고
雪玉清含九夏水 옥같은 맑은 눈이 九夏의 어름을 머금는다.

이 시에서는 제주도의 특이한 기후풍토에 자신의 높은 이상을 투영시키고 있다. 충암의 제주도 유배생활 동안에 지은 「濟州風土錄」에도 제주도의 기후를 적절하게 묘사한 대목이 보인다. 여름철 기후를 ‘蒸濕沸鬱’⁶⁴⁾ 하다고 했고, 승구의 숲이 무성해서 ‘蠅蚊尤甚’⁶⁵⁾이라 하여 견디기 어렵다고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마음은 만봉암동으로 날아 간듯하여 충암의 높은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결구의 ‘雪玉清含九夏水’의 내용은 충암보다 백 년 뒤에 유배온 李健의 「濟州風土記」에 그 내용의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곧 ‘而至於漢拏山上峯則 三庚大熱亦有水雪’⁶⁶⁾이라 보아 삼복더위에도 한라산에는 시원한 빙설이 있는 雪國風土임을 나타내며, 여름철의 정경을 영락없이 묘사하면서 시인 자신의 처지와 뜻을 그 속에 갈무리된 숨씨가 문학적이라 볼 수 있다.

和李德優

炎洲沒鯨淚 炎洲에 큰 빗방울이 떨어지니
瘴雲蒸曉昏 먹구름만 온종일 피어 오른다.

64) 金淨, 「濟州風土錄」

65) 金淨 전계서

66) 李健, 「濟州風土記」

餘生伴魘魅 이제 남은 생은 魘魅와 어울리고
遠客任乾坤 원객은 건곤에 의지할 뿐이네

충암 자신의 주위에는 언제나 그늘져 있어 어두운 감정상태 속에 침잠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에, 이제 남은 인생은 자연의 精氣에서 생기는 도깨비와 어울리며 은신처를 모색하려 했다. 또 유배된 나그네의 魂魄은 乾坤에 맡긴다고 했다. 이것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었던 유가적 생활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V. 海島錄의 國文學史的 位置

한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창조해 놓은 문학작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충암의 제주유배 한시「海島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했다. 또 36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한 그의 문학세계를 평가함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의 문집 속에 수록된 「海島錄」도 유배지 제주에서 쓰여진 한시들이기 때문에 충암의 보편적 삶의 양태라고 할 수는 없다.

그가 제주에 유배되기 전의 시적 분위기는 유유자적한 한정을 노래한 것에 반해 제주유배 한시는 어둡고 그늘진 색채를 띠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제주유배 기간에 창작된 작품만을 놓고 국문학사적 위치를 설정해 본다.

충암의 유배는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고 괴로움으로 몰아 넣는다. 그것은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어 고립감을 가중시켜 주었다. 자기 존재와 상황에 대한 괴로운 인식은 문학적 긴장감을 유발시켜 주는 계기가 된다. 그는 항상 고독했으며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느꼈다. 그래서 死地인 유배지에서 유배생활을 소중한 창작의 계기로 삼아 문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해 주었다. 충암은 자기가 처해있는 현실은 결코 자신과 유리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강한 현실 인식의 문학관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왕도정치의 실천에 앞장 섰던 道學派에 속하는 문인이었다. 도학파는 주자학의 바탕 위에서 道文一致를 강력히 주장하는 載道論의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詞章派와의 대립에서 도학파는 기묘사회를 만나 많은 희생을 치루게 되었다. 충암은 그런 시대적 상황 중에 제주에 유배되어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인식을 가다듬었다.

유배당한 처지이면서도 유교사회의 선비다운 우시연군을 노래했는가 하면, 뜻을 이루지 못해 死地에서 좌절과 절망을 하게된 자신의 신상을 길게 자탄했는가 하면, 자기인식을 통한 자아성찰과 끝내는 자연에 몰입하는 자연애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는 유배지 자연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였다. 자연의 아름다운 정

감을 굴곡없이 영출해 내면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자 하는 순수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인간과 자연의 등가물로서의 인식이라기보다는 자연이라는 객관물 속에서 인생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발견하려고 노래했다. 특히 그의 「牛島歌」는 山林文學 형성 초기의 대표작으로 후학자들은 이 「우도가」를 보고 평하기를, 꼭 귀신과 신선의 말처럼 황홀할 정도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니 그 가치의 재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유배한시 「海島錄」은 조선조 산림과문학의 저류와도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국문학사적 위치와 층압은 도학과에 속하면서도 사장과와 사장을 보다 능가하는 文人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대의 시풍이 송시풍이었으나 盛唐시풍으로 한시를 썼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VI. 結 論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선비가 詩를 쓰는 의도는 詩人 자신의 정신적 정화작용일 수도 있지만 시인은 自己 詩의 志向點을 가지려 한다.

도연명은 무릉도원, 두보는 矜恤濟民에 있었다면 충암은 애초에 왕도정치 실현에 있었으나 그 理想의 좌절을 유배지에서 겪은 좌절·절망 등을 극복하는 시세계와 시정신을 집중하였다.

한마디로 충암 김정은 기묘사화로 말미암아 제주도에 유배되어 희생된 제주 오현의 한 사람으로 구도의 정신을 문학을 통하여 실현하고자한 위대한 정치·문인이었다.

충암이 제주유배 기간에 지은 「海島錄」에 수록된 한시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배문학이란 유배로 인한 현실로부터의 고립·사회로부터의 단절 속에서 절망과 외로운 심경을 의지로 승화시킨 문학형태라고 규정했다.

2) 충암은 조선조 성종과 중종(1486~1521) 때의 사람으로 유학자요, 정치가이며 문장가이다. 그는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동왕 15년 8월에서 동왕 16년 10월에 사사될 때까지 제주에 유배당한 유배인이다.

3) 유배라는 절망 속에서도 우시연군할 수 있었던 것은 충암이 충군애국적 사상에 근원한 조선조 유교사회의 전형적인 선비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4) 충암이 추구했던 이상적 왕도정치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 급전직하의 신세를 자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회향, 생이별의 아픔·인생무상 등 다양한 영상으로 신상의 자탄을 표백했다. 이것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거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그는 주로 절박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바다·하늘·구름·꿈·안개·술 등을 통하여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의 「海島錄」에서 자탄이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은 유배 한시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단정할 수 있다.

5) 충암은 처절한 갈등과 좌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것을 자신의 운명 속에 수

융합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던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타개하려 노력했으며 과거를 반성하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죽음의 땅인 유배지에서 현실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이다.

6) 자연에 파고 들어 그 아름다움에 몸을 던져서 마침내는 자연에의 몰입을 통하여 그美에 心醉하고 있다. 또 충암이 본 자연은 아름다움과 은혜로움만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과 사이를 격리시키는 한스러운 자연으로 노래하는 일면도 강하다. 그의 「海島歌」는 山林文學 형성 초기의 대표작으로 그 가치와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곧 유배당한 몸으로 현세의 일체에서 은둔도피 하려는 심정을 표백하기 위해서 자연의 아름다운 환경을 소재로 하여 脫俗을 노래하고 있다.

7) 충암의 유배 한시는 조선조 사림과 문학의 저류와도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국문학사적 위치와 충암의 도학과에 속하면서도 사장과는 사장을 보다 능가하는 문인이었고, 한편 당대의 시풍이 송시풍이었으나 성당시풍으로 한시를 썼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參 考 文 獻

I

- 「慶州金氏 世譜」
「已卯錄補遺」上卷
金埴, 「海東名臣錄」
魚叔權, 「稗官雜記」
尹根壽, 「月汀漫筆」
李健, 「濟州風土記」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1983.
「中宗實錄」
「冲庵先生集」1-V.
「冲庵先生年譜」乾·坤
許筠, 「惺叟詩話」
「鶴山樵談」
허봉, 「海東野言」
「大東野乘」



II

- 강경선, “古典의 島嶼性에 대한 考察”, 「재대논문집」13집, 1981.
高定佑, “桐溪 鄭蒞의 流配漢詩 研究”, 碩論, 濟州大學院, 1986
국어국문학 16(70~73호) 국어국문학회.
金甲起, 「松江鄭澈 研究」, 二友出版社, 1985.
金基東, “冲庵 金淨의 流配文學攷”, 경희대석논, 1983
文淳太, 「流配地」, 語文叢書, 語文閣, 1983.
文燦植, “流配歌辭의 內容의 考察” 「全南大語文論集」1집, 1969.

- 朴晟義, 「韓國文學背景 研究 上」, 二友出版社, 1980.
- 朴喆熙, 「韓國詩史研究」, 一潮閣, 1982.
- 徐東鈇, “流配文學攷”, 「文潮」, 창간호 건대 1960.
- 成樂喜, 「최치원 시정신 연구」, 關東出版社, 1986.
- 詩 經, 李元燮(譯) 修文書館, 1983.
- 申石岬, 「李白詩選集」, 瑞文堂, 1978
- 梁淳琰, “李朝流配文學研究”, 고려대석사논문, 1969.
- _____, “濟州流配文學序說”, 제주대학논문집 제10집, 1978.
- _____, “金淨의 濟州風土錄”, 「語文研究」 제7권, 제3호, 1979.
- _____, “濟州流配漢詩考”, 「李丙疇先生周甲論叢」, 太學社, 1981.
- _____, “李健의 濟州風土記”, 「語文論集」 제20집, 고려대국어국문학회, 1981.
- _____, “秋史의 濟州流配한시”, 「제주대논문집」 제14집, 1982.
- _____, “충암의 유배한시고”, 「어문논집」 제23집, 고려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82.
- _____,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제주도를 중심으로”, 건국대박사논문, 1982.
- _____, “유배문학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성격고”, 「朴堯順先生華甲紀念論集」, 1987.
- _____, “靜軒의 濟州流配漢詩攷”, 「전국어문학」 제9,10집, 1985.
- _____, “流配漢詩에 나타난 現實認識”, 「白鹿語文」 3·4합병호, 1987.
- 李相寶, 「최치원 시정신 연구」, 關東出版社, 1986.
- 張德順,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1960.
-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3.
- 丁益燮, “流配文學小攷”, 「旣涯 梁柱東 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64.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1983.
- 趙孟洙, 「제주의 섬」, 조약돌, 1986.
- 趙成桓, “國文學과 謫所關係”, 群山教大, 논문집 7집, 1974
- 趙潤濟, 「國文學概說」, 東國文化社, 1955.
- 秦東赫, “李世輔의 流配時調研究”, 단국대 논문집, 제15집, 1981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대출판부, 1977.

「韓國史論」8, 국사편찬위원회, 1986.

「韓國言語文學」23집, 한국어언어문학회, 1984.

황패강 외,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産業社, 1982.

c.1글릭코스버그, 「20세기 문학에 나타난 인간상」, 이경식 옮김, 종로서적, 1985.



Summary

A Study on Chung Am Kim Jeong's "Haedorok"

Kang Seong Neung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Soon-pil

The purpose of writing poems in a situation of exile is to have a poems' inclination as well as a purification of the poets' mind.

The inclination was for an Utopia with To Yeon-myung, for relieving the people with sympathy with Tu Fu and for realization of governing with royal principles with Chung Am.

Chung Am's frustration of his ideal was expressed in his poetry that was intended to overcome his frustration and despair in exile.

In short, Chung Am Kim Jeong is one of the five sages that were exiled to Cheju due to Kimyo Sawha(1519). He was a great civil minister and statesman who tried to realize his ideal through literature.

The summary of the writer's study on "Haedorok" that chung Am wrote during his exile to Cheju is like the following.

1) Literature of exile is to be defined as a form of literature where a writer sublimates his despair and solitude by will, isolated from reality and shut off from society because of exile.

2) Chung Am was a confucianist, statesman and write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Chungjong(1486~1521), who was involved in Kimyo Sawha in the 14th year of King Chungjong(1519) and was exiled to Cheju to the 16th year, when he was bestowed poison to death.

3) He showed typical scholars' virtues that were based upon the Confucian society of the Chosun Dynasty, by yearning for the King even in the despair of exile.

4) He failed in pursuing his ideal of governing with royal principles and complained of his lot in life, whose complaints were on homesickness, pain of forced separation, uncertain life, and so on. This was intended for asserting his innocence. He appealed to the sea, the sky, clouds, dreams, fog and drinking to escape from the urgent situation. His complaining of himself made the main current of his literature, which can be declared to be one of the dominant characteristics of the poetry of exile.

5) He had an opportunity of self-examination by reflecting on his past and tried to open a new life by overcoming and accepting his frustration and difficulties as his lot in the extremely miserable place of exile. This means that he understood reality differently in the place of exile or in the place of death.

6) In the bosom of nature, he made a companion of nature, was absorbed in it and was infatuated with it. Yet the nature as Chung Am saw it, gave not only beauty and benefits but also vice which separated one from one's intimate people.

His "Udoka" is an early work of literature of forest and must be estimated fairly. The work sings nature's beauty to decolorize the writer's feelings to long to escape from reality.

7) Chung Am's poetry of exile underlies the forest school of literature in the Chosun Dynasty. Chung Am belongs to the school of Taoism and yet

excels the sentence-poetry school of literature in sentences and poetry.
The significance of his poetry is that he wrote poetry in the Tang styl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dominant poetical style of those days was that of admiration.

